

바른미래당, '하태경 징계' 두고 격돌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유승민 의원(오른쪽)이 손학규 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4일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안철수계와 바른정당계가 손학규 대표를 향해 '정병국 전권 혁신위' 임명권과 비당권과 다시 공개 충돌하며 내홍이 격화된 모습을 보였다.

정병국 전권 혁신위를 제안한 안철수계인 김수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이 바른미래당으로 가느냐 퇴보하느냐 갈림길"이라며 "당초 혁신안을 제안한 8인 의원뿐 아니라 모든 의원과 당원들 국민까지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혁신위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바른미래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 한국당과 다를 바 없는 바른 과거당 되고 말 것"이라며 "금일 추가 안전으로 혁신위 구성안에 관한 것을 정식으로 원내

대표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함께 제안한 안철수계 신용현 의원은 손 대표를 향해 "대표가 여러 번 노력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민이 기대하기에는 바른미래당이 새 얼굴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모습도 나왔고 6명이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고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계 유의동 의원도 "손학규 체제로 불리는 현 지도부가 출범하게 된 의미는 지난 지방선거 패배로부터 우리 당이 어떤 교훈을 얻어 아하고 교훈을 바탕으로 당의 비전,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였다고 본다"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그 어떤 제안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8인이 제안한 전권 혁신위를 전적으로 찬성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나이 들면 정신

안철수-유승민계, 손에 '정병국 전권 혁신위' 압박 윤리위 편파 논란에 이찬열 "일벌백계해야" 비판 바른정당계 즉각 반박 "손 대통령 만들기 이사냐"

퇴락 발언을 했던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서만 징계 절차가 착수되지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는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의견을 조목조목 피력했다. 이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겨냥, "꼭두각시 데리고 한국당으로 돌아가라"라고 비판해 제소했으나 징계 절차에서는 빠졌다.

그는 "제 발언 중에 일부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면 유감을 표하지만 어르신 폼페는 변명의 여지 없는 도를 넘은 막말이다.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친손(손학규)무죄, 반손유죄라고 공개 비판한 오신환 원내대표에게도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아니다. 어떻게 원내를 이끌어 갈 원내대표가 친손, 반손 편가르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바른정당계는 즉각 반박했다. 이혜훈 의원은 "하태경 의원 발언은 좋은 말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말을 한 건데 해당행위가 아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다"라며 "이찬열 의원은 사과한 적이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먼저 당 대표가 편파적 당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윤리 위원장으로 모셔온 사람이 손학규 대표 대통령 만들기 사조직 우두머

린 것을 최고위에 이야기 안하고 왔다. 이찬열 의원도 손학규 대통령 만들기 이사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찬열 의원은 이혜훈 의원 발언 중간중간 "끼리끼리 하지 말라" "윤리위원장도 그때 이야기했어야 한다"라며 인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 이상욱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사당이 아니다. 바른미래당은 지괴스럽지만 국어사전에 나온 표준어로 동아시아미래포럼의 '시다바리'가 아니다"라며 "공당 운영이 손 대표 사조직에 중요 부분 점령돼 정치적 의도로 운영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재충돌했다.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진 당시를 언급하며 "원내대표 옆에 하태경 의원이 앉았다고 (사보임에 대해) 대답 안 하니가 하태경 의원이 다그쳤다. 약속 안 한 것이라고 제가 확실히 짚었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과 이상욱 의원은 "북취록을 공개하라"고 반박하며 서로 인성을 높였다.

이처럼 설전이 계속되자 당내 최다선인 정병국 의원은 의원총회장을 박차고 떠나 냉랭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한국당에 '5당 대표 회동+단독 회동' 동시 제안"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에 여야 5당 대표 회동과 황교안 대표의 단독 회담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김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자청해 "지난주 금요일 5당 대표 회동과 황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은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회동)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즉각 의제와 의제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위한 실무회동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가운데) 원내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선교 '걸레질' 막말 겨냥한 與 대변인들의 '바닥 브리핑'

정춘숙·박찬대 원내대변인, 기자들과 바닥 앉아 브리핑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바닥에 앉아 대기하던 기자들에게 '걸레질하네'라고 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들이 4일 '바닥 브리핑'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정춘숙·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따라 바닥에 앉아 회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는 한 사무총장이 기자들을 향해 내뱉은 '걸레질'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 사무총장은 한국당 회의장 밖 복도 바닥에 앉았던 기자들이 황교안 대표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영등이를 바닥에 댄 채 앞으로 움직이자 "이주 걸레질을 하는구만. 걸레질을 해"라며 막말성 발언을 했다.

이에 한 사무총장은 "기자들의 취재 환경이 열악해 고생한다는 생

각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텔레비 탁발'이 잇따른 외종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일 원내대변인이었던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닥 브리핑을 진행하던 시절 사진을 게시하고 한 사무총장을 비판했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 체제 원내지도부에서 대변인을 했던 강 의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춘 브리핑을 진행해 '바닥 대변인'으로 불렸다.

그는 페이스북 게시물에 "취재할 때도 바닥에 앉아야만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사에만 집중하는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추지는 못할망정 걸레질이라며 기자들을 모욕하는 선배 언론인"이라며 "그 흐릿한 눈을 걸레로 닦아주면 깨끗해지려나"라고 적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박지원 "한국당, 막말 일일연속극...MB·朴 보고 배운 수준"

'골든타임 3분' '걸레질하네' 등 한국당 잇따른 막말 일침

박지원 민주당평화당 의원은 최근 잇따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 논란을 '막말 일일연속극'이라고 비유하며 "지기들이 모셨던 전직 대통령들로부터 보고 배운 교육의 수준"이라고 비교했다.

박 의원은 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비리가 없다" 발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없다. 단 그

로부터 지문은 있었다"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도 있다(정용기 정책위의장), 헝가리 유람선 구조편차 진행 중 등장한 '골든 타임은 3분(민경욱 대변인), 취재 대기 중 바닥에 앉았던 기자들을 향한 '걸레질 하네'(한선교 사무총장) 등의 발언으로 못매를 맞고 있다.

박 의원의 글은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서훈 국정원장 대북전문기자로 알려진 김현경 MBC 통일방송추진단장의 회동을 놓고 한국당에서 북풍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북풍 삼속 정당에게 이것도 배운대로 반복하는 것"이라며 "대북전문기자에게 신 북풍 공작으로 문대편 기자와 언론계를 매도하는 못된 군부독재 삼속사"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답변은 공안검사 출신 보안법 적용 전문가인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시절 사건처리했던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잘못이 사실이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 그래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면 물러나라. 그러나 사실이 아니면 끝까지 투쟁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윤서 박 의원은 평화당 내에서 추진 중인 백악관 청원 서명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평화당은 광주를 지역구로 둔 최경환 의원이 백악관 청원 게시판에 올린 '1980년 대한민국 5·18 민주화운동 관련 미국 정부 문건 공개 및 제공 요청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백악관은 청원 신청일로부터 30일 동안 최소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소비자가 선택한 2019년 가장 기대되는 브랜드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대양군'

전라남도 담양 '메타세쿼이아길'